

1. 대한민국 최고 반열에 오르다

1+ 등급 이상

평균보다
306만원
높은 가격

평균보다
64Kg
높은 무게

Kg당
가격 유지

1+ 등급
이상
출현율
100% 달성

비육우
한 마리 당
평균보다
306만원
높은 가격

30 개월령
출하기
도체중 485Kg

Kg당
도체 평균가격
1만8천~
1만9천원

대한민국 1% 반열에 오르다

2. 생산비 절감하고 품질은 높이고!

생산비 절감

- 2011년부터 수정 대상 전체 마릿수 자가수정 실시
- 수태율 높이기 위해 분만 1주일 전, 분만 20일 후 비타민 투여
- 1회 수태율 80% 이상 기록 (일반농가 평균 1.8회 보다 0.6회 적은 1.2회 유지)

품질 향상

- 마리당 사료비 389만원
→ 경영비의 60% 비중
- 사료비 비율이 일반농가(49%)에 비해 11%포인트 더 높음
- 암소개량 통해 우량 밀소 (송아지) 자체 생산
- 비육후기에는 TMR 대신 배합 사료 집중 급여
→ 생산비 절감 & 마블링, 도체중 증대

3. 대한민국 1% 명품농장

20년전 송아지 11마리로 시작한 계림농장

대한민국 1%에 속하는 명품농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

